

# 조 총장 4선 ‘불출마’ 총장 선출제 논의 재개

조인원 총장 임기 만료 3달 앞두고  
대평의-법인, 개정안 협상 난항

9월, 개정안 협상 ‘시간싸움’ 돌입  
개정 데드라인은 9월 21일이 유력

8·29 총장 선출제 개정 무산되자  
올해 말 총장 공백 우려도 부상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제 임기는 11월 23일로 마감합니다.” 우리학교 조인원 14대 총장이 지난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4선 불출마 뜻을 전했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12년간 우리학교 12·13·14대 총장을 역임했고, 오는 11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 총장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분이 앞으로 우리대학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며 “우리대학이 견지해 온 가치에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차기 총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렬 상태에 있던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도 오는 9월 4일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시간싸움’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11월 23일인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장 선출제 개정안은 법인과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이견로 확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평의는 법인소위원회 개정안과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도입을 각각 주장하며 연일 공방전을 펼쳤다. ▶관련기사 3면

대평의 내부에서까지 법인의 ‘시간 끌기 전략’에 알고도 당했다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도 총장 선출제 개정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황규리(자유전공학 2016) 부회장은 “총장 선출제 개정은 교육부 승인까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아무 진척이 없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9월 말까지 법인과 대평의가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인 이사회의 개정안 통과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법인과 대평의 양 측이 제시한 개정안 모두 후보 추천-압축-선임 3단계 과정을 골자로 두고 있어, 총장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적 여유가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이다.

두 안과 비슷한 총장 선출 절차를 가진 고려대와 서울대는 후보 압축 단계에만 각각 3달과 4달의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2014년, 고려대는 10월 1일 19대 총장 선출 일정을 시작해 12월 22일에야 후보 압축을 마쳤다. 올해 서울대 27대 총장 선출 역시 총장 후보 압축단계에서만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4달 가량 소요됐다.

이처럼 타 대학 총장 선출 사례에서 후보 추천-압축 단계에만 보통 3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총장 공백 사태 방지를 위해선 늦어도 9월 안에 관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장 선출제 데드라인으로 추측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1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8월 29일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대평의가 차기 총장은 반드시 새로운 제도에서만 선출·임명하자고 앞서 공언한 점 역시 총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긴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행정과 재정 등 우리학교 주요 정책과 사업 결재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만큼, 대학 운영 전반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인은 총장 공백 사태를 염두해 둔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 심의회측실 이호 실장은 “총장 공백 상황을 가정한 논의는 법인 내부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대평의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총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8월 24일 열린 대평의에서 직원대표 안병철 위원은 “차기 총장은 새로운 선출제에서만 뽑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총장 선출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차기 총장을 뽑을 수 없는 형국에 당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A씨는 “총장 선출제 개정이 마지노선인 9월을 넘어간다면 총장 공백 상황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캠 본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대평의

대학평의원회(대평의)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 즉각 수용을 법인에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됐던 총장 선출제 개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 외대 37년 만에 첫 리모델링, 강의·열람실 환경 개선 완료

이서림 기자 sllee001@khu.ac.kr

【국제】 지난 방학 동안 외국어대학(외대)이 1981년 완공 이래 첫 리모델링을 마쳤다. 지난 6월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8월 23일 끝났다. 리모델링은 A동 2층 로비를 비롯해 강의실, 복도, 세미나실, 연구실 새 단장에 중점을 뒀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 개선, 천장 석면 제거, 바닥 보수 공사 등이 진행됐다.

열람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A동 3층에 위치했던 학생 열람실은 2층 통합 행정실 위치로, 통합 행정실은 208호 캡스톤디자인전용 세미나실 위치로, 세미나실은 기존 열람실 위치로 이동했다.

2007년 ‘캠퍼스마스터플랜’부터 언급된 외대 리모델링 사업은 11년 만에 결과를 맺었다. 2010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냉·난방, 방음, 공간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색의 광장 뒤편 야구장 부지에 외대를 신축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건물을 개조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2011년, 재정 문제로 초기 1,795억 원의 규모가 790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은 계속 미뤄졌다.

2014년에는 SPACE21 대표건축가 이현호(홍익대 실내건축학) 교수의 제안에 따라 수직으로 1,000평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강의실 부족 및 소음문제 발생 우려 속에



중단되기도 했다. SPACE21사업단은 1,000평 규모 교수연구동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역시 재정 문제로 불분명해졌다.

지난 3월 외대 학생회는 국제캠퍼스 부총장실에 리모델링 사업규모 축소 및 지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부총장실에 따르면, 당초 사업은 2017학년도 동계방학과 2018학년도 하계방학에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디자인 개선, 기술적 검토, 구성원 간 논의 장기화, 주무부서 폐지에 따른 인수인계 및 업무진행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연기됐다. 마침내 지난 3월 열린 2018학년도 1차 외국어대학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설계 작업이 완료됐으며 시공업체가 선정됐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달 23일, A동 리모델링이 끝났다.

외대 김영주(한국어학) 학장은 “지나여

름 속에서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일정을 위해 협조해주신 외대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이제 밝고 깨끗한 새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대 학생회 안동현(스페인어학 2013) 회장은 “유난히 더웠던 공사에 힘써주신 관계자 분들과 학장님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외대 행정실 송혜경 실장은 “2학기에도 개·보수 업체가 상주하면서 주말에 미진한 부분을 정비할 예정이다”라며 “B, C동 리모델링은 오는 동계방학에 진행되며 디자인과 공사범위까지 확정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언어교육원 강의실과 한누리소극장을 제외한 B, C동 전체 천장, 벽면, 바닥이 개·보수되고 중앙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 우사세·시민교육 통폐합 … 내년 1학기 후마 전면 개편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오는 2019학년도 1학기를 목표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과목 전면 개편을 논의 중이다. 학문적 가치, 인간적 가치에 바탕을 둔 실용적 가치 추구,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개편이자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전환이다. 교수와 학생의 친밀한 교육적 관계 형성도 개편 목표에 포함된다. ‘후마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 TF팀(실행위원회)은 “시대변화에 따른 평가방식 및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필수과목 개편을 위시로 교육방식이 개편된다. 기존 필수과목인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시민교육, 글쓰기1·2,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 6과목은 5과목으로 축소하며 강좌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조정한다. 우사세와 시민교육이 ‘세계와 시민’ 과목으로 통합되고 글쓰기1은 ‘성찰과 표현’, 글쓰기2는 ‘주제연구’로 명칭을 변경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인가탐은 기존 주제를 유지하면서 우사세의 일부 주제를 수용할 예정이다. 빅문은 지난학기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도입한 ‘Flipped Learning’ 방식을 수정·보완하여 75분 동안 토론과 Q&A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강생 수도 서울캠 35~40명, 국제캠 35명 선으로 개편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 보조 교재 활용도를 높이고자 논의

하고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이공계열은 단과대학 전공기초나 배분이수 과목으로 빅문 이수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사세와 시민교육이 통합된 ‘세계와 시민’은 이론, 글로벌 이슈, 실천 활동이 결합된 교과목이다. 개편을 위해 국제교류처, 지구사회봉사단(GSC), 미래혁신원, 유네스코, 국제 NGO 등 대내·외적 연계협력을 이뤘다. 이리나 보코바 명예대학장을 비롯한 에미넌스 스칼라, 외부 전문가 자문도 구했다. 세계와 시민 과목을 통해 근대 이후 시민권 확립 과정, 시민권의 역사, 시민의 권리와 책임, 글로벌 이슈에 관한 과학적 이해와 인문·사회적 접근을 배운다.

▶3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사령

면  
〈편집장〉 박지영(언론정보학 2016)  
〈국제뉴스팀장〉 설치연(프랑스어학 2015)

명  
〈편집장〉 최명규(소프트웨어융합학 2017)  
〈국제뉴스팀장〉 이후승(한국어학 2017)  
〈서울뉴스팀장〉 안나연(간호학 2017)

#### 전문가 칼럼

질병 극복은 다각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황교선(의학) 교수 >> 7면

